

구 시모무라 가문 주택

구 시모무라 가문 주택은 못의 구조로 보아 에도 시대(1603~1867) 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.

이 주택은 위에서 봤을 때 디귤(ㄷ)자 모양의 초가지붕이 특징이며, 시오타쓰에서도 몇 안 되는 구조입니다. 모양이 옛날 부엌에서 조리해 사용하는 ‘구도(竈=아궁이)’를 닮았다고 하여 ‘구도즈쿠리 양식’이라고 불립니다. 큰길에 접한 건물 앞면이 비교적 좁은 이유는 정면의 폭이 좁으면 거주자의 세금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. 그 대신 건물은 안쪽으로 길고 가느다랗게 뻗어 있습니다.

시모무라 가문은 처음에 곤약 가게로 시작했으며, 다이쇼 시대(1912~1926)에는 해운업, 쇼와 시대(1926~1989)에는 자전거 가게로 바뀌었습니다.

시모무라 가문의 당주인 시모무라 류키치는 위생 측면에 문제가 있었던 시대에 특히 중요한 설비인 식수 수원을 확보하고 그 물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시오타쓰에서 존경을 받았습니다. 1955년에는 그 공적을 기려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.

이 주택은 2007년에 우레시노시에 기증되었으며 현재는 시오타쓰와 관련된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. 2008년 7월 1일에 시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.